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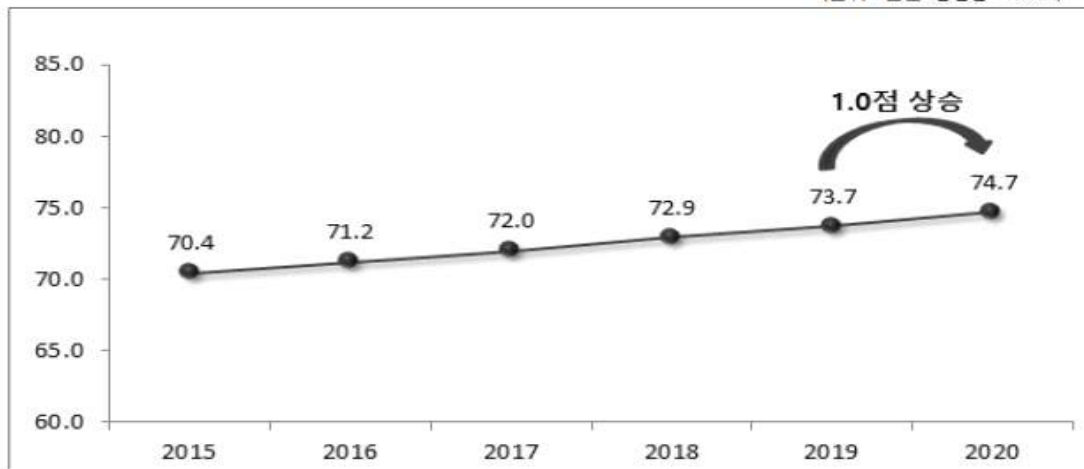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젠더 갈등 심각성과 방안>

이민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젠더 갈등 문제는 극에 치달고 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성을 비하하고,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롱하고 짓밟는다. 더 이상 젠더 갈등 문제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각자 자신이 더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처럼 정말 우리 사회가 성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평등지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¹⁾라고 정의하겠다.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이다.²⁾ 성평등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통계생산기준으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성평등을 시계열로 측정하고 있으며, 성평등지수의 값은 ‘0.0’(완전 불평등)에서 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숫값도 높아져 ‘100.0’(완전성 평등)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이다. 위 그래프를 보아도 매년 국가성평등지수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의 상승 원인을 보면, 먼저 2015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개선이 높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9.8점), 가족 분야(7.0점), 안전 분야(6.1점), 경제활동 분야(4.8점)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인 높은 분야는 복지로 2.4점이 개선되었고 가족, 안전, 의사결정, 교·직업훈련 순으로 높은 개선을 보였다. 또한 2015년과 비교하여 약간 하락했던 것과 달리 보건과 문화·정보 영역에서도 전년 대비 0.1점과 0.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선은 이전에 비해 개선 정도가 약간 높았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³⁾ GGI의 경우 2021년 발표 기준 한국은 전체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2) 박송이, 「성평등지수란?」, 성인지데이터센터, 2022년 1월 5일,

https://gsis.kwdi.re.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156개국 중 102로 전년 대비 6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국제 성평등지수로 비교하자면 아직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이는 남성, 여성 모두가 인지해야 할 문제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지수 관련 정책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8~2022) 등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가 법적 근거를 두고 개발·공표되는 지수로서, 향후 관리와 개발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불평등이 심화한 지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의 관리는 지역 성평등지수와 더불어 웹 DB를 구축하고 상시 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성평등지수의 지표 중 성별 불평등이 높거나 개선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돌아와서 필자는 젠더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베와 워마드와 같은 일부 극단적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는 행동에 찬물을 끼얹고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일베는 여성 혐오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성 소수자 비하하고, 워마드는 남성 혐오,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 일베와 워마드 두 커뮤니티만 비교하더라도 전혀 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 커뮤니티와 더불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언론과 가짜뉴스도 젠더 갈등을 심화하게 하는 촉매라 생각한다. 혹시 2021년 7월경 지하철 3호선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여성이 쓰러졌는데, 주변 많은 남성이 머뭇거리 도와주지 않는 사건을 아는가? 요즘에는 젠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스쳐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여성 혐오 논란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MBC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⁴⁾, 사실 여러 명의 남녀가 같이 도와주었고,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사람은 의사 직업을 가진 남성이었다. 또한 의상은 짧은 핫팬츠가 아닌 반바지가 무릎까지 오는 기장이었고 장화가 매우 길어 성추행으로 의심받을 복장은 아녘다고 한다. 하지만 “핫팬츠女 지하철서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한 이유는”⁵⁾, “핫팬츠 女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3호선서 생긴 일 ‘시끌’”⁶⁾과 같은 선정적인 용어와 기사 제목이 난무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 작성해야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클릭 수만을 생각하는 언론 때문에 젠더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가짜 뉴스 문제의 심각성은 확증편향과 집단 극단화를 자극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 붕괴가 발생한다.⁷⁾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의 성을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 상대의 성을 과잉 일반화, 이분법적인 사고는 지양해야 하며 남녀 이전에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젠더 감수성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언론에서도 성숙한 젠더 감수성을 고양해야 한다. 남성, 여성 모두 상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하는

3) 주재선 외 3명,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p.4.

4) 이 기사로 전준홍 기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양성평등 미디어상을 수상하였다.

5) 이미나, “핫팬츠女 지하철서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한 이유는”, 한경사회, 2021.07.0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693887>.

6) 최서영, “핫팬츠 女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 3호선서 생긴 일 ‘시끌’”, new1 뉴스, 2021.07.05, <https://www.news1.kr/articles/?4361055>

7) 임상수, 「‘가짜 뉴스’와 팩트체크 문제에서 정보윤리 책무성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 한국윤리학회, 2020, p.130~132.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혐오는 그냥 전파되지 않고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혐오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유통할 것이다. 명심해라. “혐오는 돈이 된다.”